

에코로지·마크(에코·마크) “環境保全型”商品



資源을 利用하거나 環境汚染이 적은 所謂“クリーン商品”에 에코로지·마크(通稱에코·마크)를 붙치는 環境保全型商品 即 一般消費者에게도 環境에의 關心을 높혀 주게될 에코·마크(에코로지의 英字E를 象徵)商品이 빠르면 4月부터 日本에서선 보이게 된다.

日本의 環境廳에서 決定한 에코·마크事業의 實施要領과 實行內容을 보면, 이미 심볼·마크도 共募로 決定되었고, 에코·마크를 붙칠 第1次 對象品目으로 프레온을 使用하지 않은 頭髮用 스프레이等44개의 製品이 審查를 거쳐 選定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追加되겠지만, 프레온을 使用하지 않은 스프레이의 化粧品類, 烹事場의 下水口에 달린 下水 걸림채, 물을 濾過해주는 濾過紙, 食用油를 빨아들이는 吸油紙, 生고무 콤포스트化機品, 再生紙를 利用한 環境과 關聯된 책(雜誌等)이 對象이 된다.

日本의 境遇 프레온의 約10%는 스프레이 使用되고, 그것의 40%는 男女의 整髮用等의 化粧品用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이 스프레이 商品이 年間 2億개나 팔리고 있다고 한다.

最初로 오존層의 후랭크·S·로랜드 教授

프레온에 의한 오존層破壞의 可能性을 最初로 指摘한(1974년)美캘리포니아大學의 후랭크·샤워·로랜드教授(1927년 오하이오州, 出身, 52년 시카고大學에서 博士學位取得, 專門은 放射化學)는 프레온이‘오존層을 破壞한다는 事實을 알게된 動機에 對해 「처음엔 다만 프레온의 性質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實驗室內에서의 實驗結果만으로는 滿足할수 없어 大氣中에 放出된 프레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確認하고 싶었다」

그런데 「意外로 프레온이 成層圈에 까지 올라가는 것과 濃度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프레온이 太陽光을 받아 分解되고 이때 發生하는 鹽素原子가 오존層을 破壞한다는 理論(假說)에 到達하게 되었다」

「73년에 研究를 始作하여 最初의 論文은 4개월 후에 끝냈다.」

이 論文이 美國에서 높이 評價되었고 具體的인 規制로 連結되었다.

프레온이 오존層을 破壞하고, 地球를 温暖化한다는 事實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튀김油, 한숟갈을 下水道에 버렸을 때, 稀釋에 必要한 水量은 3ton이라고 한다.

西獨에서는 10年削에 「環境保護마크」制度를 實施하고 있고, 2,640개의 商品이 認定되고 있으며, 消費者의 反應도 좋다고 한다.

프랑스나, 캐나다等도 式하고 있는데, 環境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消費生活의 轉換이라, 할수있으며, 「綠色의 消費者 運動」이라고 불리고 있는等, 好萍을 받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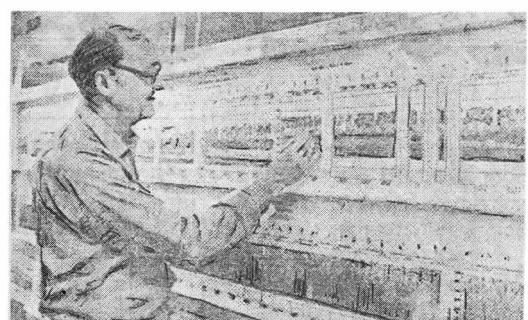
에코·마크가 붙은 商品을 골라산다는 것은, 製品과 製作者等 選別하는 것이 되며, 消費者도 環境保護에 參與하는것이 된다.

그것은 地球와 우리들의 未來를 救하는 것도 된다.

이 애고·마크를 붙혀, 팔아도 좋은 商品인지 아닌지는, 製造, 販賣業者의 伸申에 依해, 專門家가 審查한다.

이 理論이 新聞이나 雜誌等을 通해 紹介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關心을 갖게 하였는데

그후 85년도에 南極 上空 오존홀이 發見되어 假說이 實証되면서 사람들은 「破局은 면 未來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深刻하게 生覺하게 하였다.



航空機에 依한 北極上空의 오존 分布調查의 分析이 進行되고 있는 美航空宇宙局(NASA)의 衛星研究센터(NASA 提供)